

기획조사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본 환율하락 체감도 및 경쟁국기업동향 -

2006.1

KOTRA 통상전략팀

< 목 차 >

[요 약]

I. 최근 환율동향	1
1. 원/달러 환율변동 추이	1
2. 엔화·위안화의 대미환율 추이와의 비교	6
II. 해외진출기업 대상 체감환율영향 분석	10
1. 조사방법	10
2. 분석결과.....	11
가.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체감영향	
나. 적정환율 및 마지노환율	
다. 환율전망	
라. 환율대응전략 및 기타 애로점	
III. 환율변동에 대한 주요 시장별 영향과 경쟁국 기업동향	17
1. 미국시장	17
2. 중국시장	20
3. 유럽시장	22
4. 아시아시장	24
5. 중남미시장	25
6. 중동·아프리카시장	26
7. CIS시장	28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30
1. 원/달러 환율하락의 한국수출에의 영향	30
2. 대응방안	31

[요약]

- 원화 가치는 2005년 상반기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반기 완만한 강세를 보인 후 12월 중순부터 급격한 강세로 돌아섬
 - 2005년 1월 1,037원/달러로 시작한 환율은 5월 12일 990.4원/달러로 급격하락(원화강세) 상반기에 변동폭이 컸으나 10월 25일 1060.3원/달러 최고점(원화 최약세)이후 12월 초까지 완만한 원화강세 유지
 - 12월 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2006.1.5일 1,000원 미만으로 급락(원하강세)하면서 국내 기업·관련기관 반응 고조
 - 1월 13일 976원 저점을 통과한 후 1월 24일 현재 980원/달러에서 반등과 재하락 동향을 보임
- 미국의 금리인상 조기종료, EU 및 일본의 경기회복, 한국외환시장의 환투매 등이 달러가치 절하 유도

외부적 요인	- 미국 금리인상세 조기 종료 예상 - 미국 고용지표 부진 및 쌍둥이 적자 지속 전망 - EU,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 - 중국 위안화의 추가절상 및 외환보유 통화 다양화 움직임
내부적 요인	- 한국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아 외부 변수에 의한 직접적 영향 큼 : 주요국 외환시장 일일외환거래량이 연간 무역거래량 대비 20%이상인 반면 한국은 5.4%(일일거래 200억 달러)에 불과 - 우리 수출기업들이 환위험 회피위해 은행권과 체결한 녹아웃 옵션이 통상 980원/달러로 기준으로 계약 해지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환율 급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달러 선물환 급매도세 - 금년도 한국 경제가 수출증가, 경상수지 흑자, 설비·건설투자 개선 등으로 호조 예상

□ 위안화는 큰 변화없이 계속 저평가된 상태이며, 엔화는 2005년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12월 중순이후 원화가치와 동반상승

- 엔화, 원화 동반 강세로 '05년중 약세를 지속해온 일본 엔화대비 가격경쟁력 다소 회복했으나 여전히 원화대비 엔화의 상대적 약세지속
- 위안/달러 환율은 변동없어 우리 경쟁력 더 악화 ('05.12.5-'06.1.24)
 - 하락율 원화 5.52%, 엔화 5.58%, 위안화 0.20%

□ 달러화는 2006년 약세가 지속될 것이나 급격한 평가절하 없을 것임

- 달러화 : 무역적자폭 감소 가능성, 외국과의 여전한 금리차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급격한 달러 약세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
- 원화 : 단기저점 950원이 대세이나, 1월 중순이후 하향 수정하는 기관 대두
 - Morgan Stanley (1.12일), 골드만삭스(1.16일) 등은 2006년 말 원/달러 수준을 920원/달러 내외로 대폭 하향 수정
- 엔화 : 1월 초 114엔/달러 수준에서 2006년말 109엔 내외(해외 26개 금융기관 전망 평균치)로 다소 하락할 전망
- 위안화 : 1월 초 8.07위안/달러 수준에서 향후 2-5% 평가절상
 - 메릴린치는 1분기 말 7.91위안/달러, 2006년말 7.5위안/달러로 전망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85%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체감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환율대응전략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

- 지역별로는 對북미 및 對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산업별로는 섬유산업과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의 체감피해가 가장 큼

- 반면 정보통신산업과 철강산업 해외진출 기업들이 타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체감피해가 적었음

○ 마지노 환율은 지역별·산업별 모두 950원/달러를 가장 많이 응답, 환율이 950원/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해외영업 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됨

* 적정환율 : 적정마진 확보수준, 마지노 환율 : 수출포기 고려수준

○ 상당수 바이어가 환율 불안정성을 감안, 가격 변동이나 거래선 변경 없이 향후 추이를 주목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화보다 위안화 환율에 더 관심

□ 일본·중국기업은 자국통화 결제율이 높거나 자국 통화가치의 약세로 한국기업에 비해 유리한 국면임

○ 일본기업 : 대부분 엔화로 거래 중임으로 최근 환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 초 대비 엔화가 여전히 약세이므로 체감 피해가 미미하며, 최근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장기 환율 불안정성을 감안, 가격 인상 요구를 자제하면서 관망세

- 다만 중국시장 진출기업의 경우 엔화강세보다는 위안화의 대달러 추가절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절상폭이 적을 경우 일본기업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음

○ 중국기업 : 위안화 강세 기조 변화 없으며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중국제품 가격이 전반적 상승세임을 감안, 가격 인상 요구 자제하고 기술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주요 시장별 환율영향 및 경쟁국 기업 동향

지역	우리기업에의 영향	경쟁국 기업 동향
북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 여건 악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 -우리기업의 대다수가 기업차원의 환율변동 대처시스템 활용 (전담부서 운용, 환관리시스템 등) -주요 바이어들은 관망세	-일본기업: 12월대비 엔화강세에 따라, 생산성향상 및 환리스크 회피 전략 돌입. 가격인상 자체 움직임 -중국기업: 바스켓통화제도에 따라 달러약세 추세에 영향없음. 가격인상보다는 수출물량 확대에 주력 예상
중국	-타지역에 비해 환율변동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기업차원의 환관리 시스템은 미미한 편 -주요바이어들은 관망세 유지	-일본기업: 엔화강세보다는 위안화 추가절상 여부에 더 관심
유럽	-유로화 결제비중이 높아 원/달러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이 대부분 유로화 결제를 선호 -섬유 등 일부산업에서는 가격인상 움직임 감지
아시아	-타지역에 비해 환율하락에 의한 수출영향도가 낮은 편 -기업차원의 환관리시스템을 운영 하는 비중 높은 편 -중소기업의 경우, 가격조건을 빈번히 변경, 신뢰도 저하 사례 발생	-일본기업: 지난 12월동안 진행된 엔화약세로 인한 가격공세 지속 -중국기업: 위안화 절상이 느리게 이루어져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에서 매우 유리
중남미	-환율하락 영향 일부 있으나, 기업차원의 환관리 시스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헤알화 등 중남미지역 주요통화의 강세현상이 달러화약세 요인 상쇄됨에 따라 가격인상 자체 움직임
중동	-대부분의 기업이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반응	-결제통화 다변화(유로화결제) 등 환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CIS	-활발해지는 대러시아 시장 진출에 불리한 여건 조성될까 우려하는 분위기	-최근 러시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에 매우 유리한 환경 조성

I. 최근 환율동향

1. 원·달러 환율변동 추이

가. 대달러 원화환율 동향

날짜	'05/1/11	'05/5/12	'05/10/25	'05/12/13	'06/01/24
원/달러	1,053.2	999.4	1,060.3	1,033.9	977.9
변동률(%)	-	-5.11	6.09	-2.49	-5.42

-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와 약세 추세가 지난 2005년 상반기 급격한 반전을 보이고, 10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원화강세가 이루어지다 12월 말부터는 다시 급격한 원화강세 추이지속
- 대미달러 원화환율은 2006년 1월 13일 976원 저점을 통과한 후 반등과 재하락의 동향을 보이며 단기 환율이 빠르게 움직이고 1월 24일 현재 980원을 전후로 변동하고 있음

나. 대달러 원화환율 하락의 원인

- ▷ 미국의 재정·무역수지 적자지속과 유럽·일본의 경기회복 전망등으로 달러화약세 지속
 - ▷ 한국경제의 희망적인 전망에 의한 원화가치 상승과 더불어 작은 규모의 한국외환시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컸음

☐ 외부적 요인

- 전체적으로 달러화약세 진행 : 엔/달러, 유로/달러 환율이 1월 초 단기 최저치를 기록하며 엔/달러 폭락이 달러약세화의 도화선 역할을 함

-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단기달러화강세가 미국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약세를 당연한 현상으로 인식
- 2004년 6월 1%에서 현재 4.25%까지 상승하여 2006년 1분기 한차례 인상 이후 추가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뉴욕시장에서 12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무역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등 전체적 달러화약세요인이 강함
- 일본·EU의 경기회복 전망에 의한 일본·EU 금리인상 전망이 달러화 약세를 선도
- 중국위안화의 추가절상 및 외환보유고 관리를 다양화할 것이란 전망

□ 내부적 요인

- 한국의 외환시장이 미국, 일본 및 타아시아 주요국과 비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단기적으로 시장개입세력에 의해 환율의 급락이 일어날 위험이 존재함
- 일일 외환거래량이 연간무역거래량대비 20%이상을 상회하는 주요 해외 외환시장과는 달리 한국외환시장에서는 일일 약 200억달러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는 연간무역량의 5.4%에 그침
- 일부 단기수급 측면에서 일부 헷지펀드의 투기적 달러화 매도 요인가세
-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외은행과 체결한 녹아웃옵션¹⁾이 980원/달러 기준으로 계약해지 조건이 설정되어있어서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달러 선물환을 급매도해 추가적으로 달러화약세를 견인함

1) 환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그 이전의 모든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의 선물환계약

- 수출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설비 및 건설 투자실적 개선 뉴스와 빠른 국내경기회복 등 한국경제의 희망적인 전망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증가가 일어나 이로 인한 원화수요 증가

다. 국내외 전문기관 분석 및 환율 전망치

▷ '06년 달러 약세는 지속되고 원화, 유로화, 엔화의 동반절상이 예상되나, 위안화는 절상폭이 타통화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원/달러

- 2006년 달러화약세는 예견되었고 달러화약세 시작시기를 1분기이후로 전망하였으나, 달러화 약세가 '05.12월 중반부터 급격히 시작되고 하락폭도 예상보다 커 외환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남
- 그러나, 미국의 금리상승이 중단되더라도 미국 금리가 주요국의 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아 급격한 달러가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대세임
- 한편, 달러화약세 요인의 지속과 한국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영향력 약화로 인해 2006년말 92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해외투자기관의 전망도 나오고 있음

<주요기관 원/달러 환율전망>

	3개월 후	6개월	1년 후
시티은행 (1.16)	970	950	920
삼성경제연 (1.16)	970-980	-	-
현대경제연 (1.16)	970-980	-	-
한국금융원 (1.16)	980-990	-	-
Morgan Stanley (1.12)	965	950	920
골드만 삭스 (1.16)	975	950	925

□ 달러/유로

- 경제심리지표 개선 및 미국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 등으로 '05. 8월 이후 소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독일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이탈리아·프랑스의 재정적자로 다시 하락 '06. 1. 24일 현재 1.23달러/유로의 유로화 강세 기록 중
- '06년 유로화는 1/4분기에는 현수준 보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미국의 약달러 정책과 EU의 소비확대에 힘입어 1.20~1.30 달러/유로 수준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 다수

<주요기관 달러/유로 환율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HSBC ('05.12.21)	1.18	1.21	1.28
UBS Warburg ('05.12.21)	1.18	1.23	1.30
ABN Amro ('05.12.21)	1.18	1.21	1.28
Deutsche Bank ('05.12.21)	1.13	1.16	1.27
Golman Sachs ('05.12.21)	1.20	1.25	1.30-
Citi Bank ('06.1.3)	1.28	1.34	1.36
Morgan Stanley ('06.1.5)	1.18	1.20	1.24
프랑스 BNP PARISBAS (05.12)	1.22	1.25	1.32

□ 엔/달러

- '06.1.24일 현재 엔/달러 환율은 114.5 엔/달러이나 26개 세계 주요 금융기관전문가들은 '06년 말 엔화환율이 평균 109.5 엔/달러 수준으로 엔화 강세 추이전망
- 엔화가치 저평가에 대한 미국 산업계로부터의 불만 증대와 일본의 금융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따라 엔화가치 절상 전망

<주요기관 엔/달러 환율 2006년 말 전망>

	1년 후
골드만삭스	95
노무라증권	115
메릴린치	101
시티그룹	98
HSBC	110
도이치뱅크증권	102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108-115
미쓰비시총합연구소	110-114

주 : 1월 초에 발표된 전망치

□ 위안/달러

- 중국의 막대한 대외무역흑자와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위안화 절상요인이 높고, 중국 제조업이 5%의 평가절상정도 수준은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소폭의 위안화절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홍콩달러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홍콩달러와 수준을 맞추어 나갈 것으로 전망
- 미국등으로부터 위안화절상 압력을 받고 있어 2-5% 위안화가치 절상이 예상되나 미정부가 요구하는 30-40%의 대폭적절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주요기관 위안/달러 '06년 말 환율전망>

	'06년 말
Royal Bank of Scotland	7.67
AMVESCAP (미국투자회사)	7.83-7.91
메릴린치	7.5
DBS Bank (싱가포르)	7.67-7.83
CCFEI (중국화학섬유경제정보망)	7.59
도이치뱅크증권	7.75
EIU	7.57

주 : 1월 초에 나온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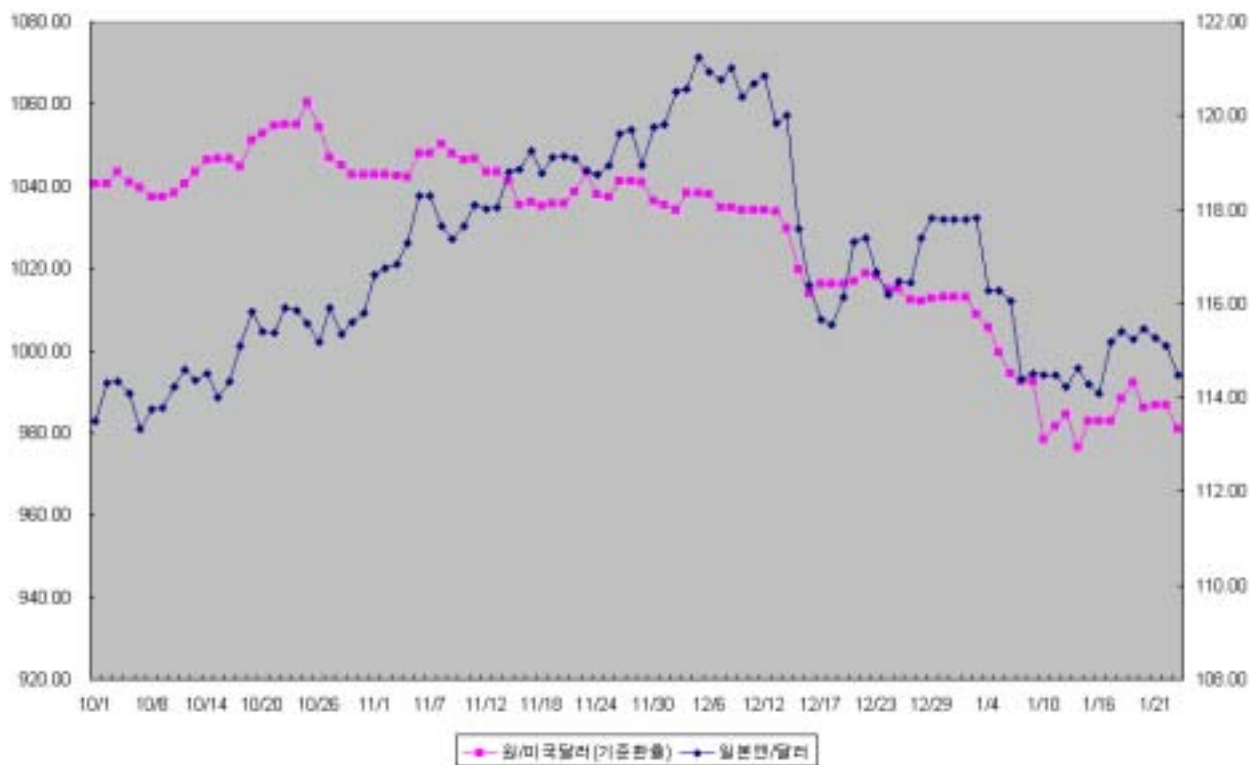
2. 원화 대 엔화, 원화 대 위안화의 대미환율 추이와의 비교

가. 대미달러 원화환율 및 엔화환율 추이 비교

- ▷ 12월 중순 엔/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했으나 엔화 가치는 2005년 초반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약세 지속
- 하락율 원화 5.52% 엔화 5.58% ('05.12.5-'06.1.24)

<원/달러환율 및 엔/달러환율 추이>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환율정보 : 한국은행 ECOS

- 2005년 엔화가치는 2005년 12월 5일 대달러 121.2엔을 기록하는 등 12월 초까지 약세를 유지하다 세계외환시장의 달러화약세 추이에 따라 엔화강세로 반전됨 (상기표 참고)

- 달러화로 결제를 하는 지역에서 일본기업과 수출경쟁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엔화약세 증가 추세가 중단되어, 가격경쟁력 열세 다소 완화되었음
- 하락폭도 원화보다는 엔화가 다소 큼
 -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엔화환율이 최고점에 달했던 12월 5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0.25%만 상승한 반면, 엔/달러환율은 18.12% 상승해 엔화약세가 크게 진행
 - 그러나, 이후 2006년 1월 24일까지 엔/달러환율은 5.58% 하락함
 - 1월 24일 현재, 원/달러환율은 5.52% 하락이 일어나 미미하게나마 엔화가치 약세 지속경향이 중단
- 12월 5일 이후 엔화환율과 원화환율의 동반하락으로 일본업체와의 경쟁에서 추가적 가격경쟁력 불리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 복원은 2005년 초반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음 (아래표의 첫째 항)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변동폭>

2005년 1월 - 200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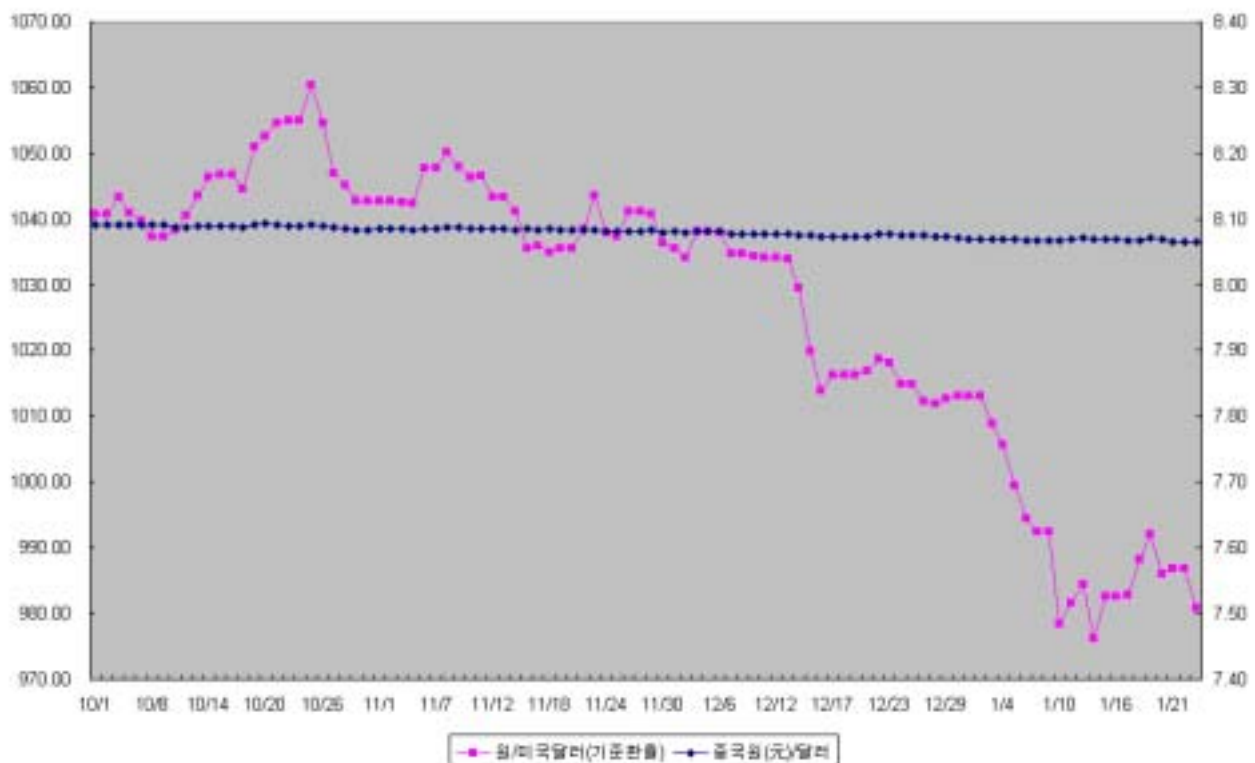
기간	2005.1.4 ~ 2006.1.24	2005.1.4 ~ 2005.12.5	2005.12.5 ~ 2006.1.24
원/달러환율 변동률	-5.28%	0.25%	-5.52%
엔/달러 환율변동률	11.54%	18.12%	-5.58%

환율정보: 한국은행 ECOS

나. 대미달러 원화환율 및 위안화환율 추이 비교

- ▷ 위안/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계속 저평가 되어있음
 - 하락율 원화 5.2%, 위안화 0.20% ('05.12.5-'06.1.24)

<대미달러 원화환율 및 위안화환율 동향>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환율정보 : 한국은행 ECOS를 데이터를 이용한 저자계산

- 중국의 대미 환율의 변동은 변동바스켓시스템 적용이후 소폭 절상이 있었으며 추가절상도 전망되어지나 절상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7월 위안화가 변동바스켓시스템으로 바뀐 이후 대달러 위안화환율은 2006년 1월 24일 현재 2.56% 하락하여 위안화 강세가 완만히 이루어졌으나 같은 기간 원화환율 하락폭 5.90%를 고려할 때 위안화는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임

- 특히 환율급변이 이루어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의 추세를 급변한 원화 및 엔화와 달리 위안화환율은 0.20% 하락에 불과, 사실상 변동 없음
- 결론적으로, 2006년 1월 급격한 원화의 대달러환율하락은 위안화의 추가절상이 없는 한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업체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됨

<원/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 변동폭>

2005년 7월 - 2006년 1월

기간	2005.7.21 ~ 2006.1.24	2005.12.5 ~ 2006.1.24
원/달러환율 변동률	-5.90%	-5.52%
중국위안/달러 환율변동률	-2.56%	-0.20%

환율정보 : 한국은행 ECOS

주 : '05.7.21 중국이 위안화 환율조정 변동바스켓시스템을 도입

II.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체감환율영향분석

1. 조사방법

- 37개국에서 KOTRA 해외무역관이 총 206개사의 한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 10일에서 1월 17일까지 설문조사
- 설문조사 참여지역 및 지역별 참여무역관
 - 아시아·대양주 : 싱가포르, 방콕, 쿼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 중국 :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다롄, 홍콩, 타이베이
 - 북미 :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토론토, 밴쿠버
 - 중남미 : 멕시코시티, 과테말라, 파나마, 산토도밍고, 리마, 산티아고, 상파울루
 - 구주 : 베를린, 브뤼셀, 바르샤바, 런던
 - CIS :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키예프, 타슈켄트, 알마티, 노보시비르스크
 - 중동·아프리카 : 두바이, 리야드, 카이로, 나이로비, 라고스, 레바논, 테헤란, 암만, 알제, 오하네스버그, 트리폴리, 모로코
- 분석방법은 기초통계, 카테고리별 분석이 가능한 크로스 탭 분석방법, 회귀 분석통계법을 사용

2. 분석결과

가. 환율하락(원화강세)이 수출에 미치는 체감 영향

- ▷ 對북미 및 對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산업별로는 섬유산업 및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원화강세로 인한 체감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과의 경쟁지역 및 자동차부품·섬유산업 진출기업이 최근 원화강세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 경향

- 원화강세는 해외진출기업의 시장진출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지역별로는 북미 및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 산업별로는 섬유산업에서의 체감피해가 더 큼
- 전체 응답기업의 85%가 원화강세가 자기업의 비즈니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함
- 전체적으로 환율하락이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며, 지역(아시아·대양주/중국지역 vs. 북미/중동·아프리카)별 산업종류(IT vs. 섬유)별 해외진출기업이 느끼는 원화강세영향 체감차이가 존재함

☐ 지역별

- 북미지역과 같은 중국 및 아시아 수출국들과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번 원화강세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것으로 판단
- 각 지역별로 원화강세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북미(62.5%)와 중동·아프리카(64%) 지역 진출기업들이 원화강세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아시아·대양주 진출기업 20%, 중국지역 진출기업의 경우는 약 16%가 환율하락이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타 지역 진출기업에 비해 원화강세에 적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한국진출기업 환율영향 체감도>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아시아·대양주	32%	40%	8%	20%	100%
중국	35.2%	45.1%	4.2%	15.5%	100%
북미	62.5%	37.5%	0	0	100%
중남미	40%	45%	0	15%	100%
구주	44.4%	33.3%	11.1%	11.1%	100%
CIS	42.9%	42.9%	9.5%	4.8%	100%
중동·아프리카	64%	36%	0	0	100%
합계	43.6%	41.2%	4.4%	10.9%	100%

□ 산업별2)

- 정보통신산업과 철강산업 해외진출기업들의 경우 타 산업의 해외진출 기업보다 원화강세에 덜 민감하나, 섬유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산업 진출기업 들은 원화강세가 수출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진출기업 환율영향 체감도>

환율영향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자동차 및 부품	75.0%	15.0%	0	10%	100%
전기전자	51.2%	41.9%	4.7%	2.3%	100%
정보통신	25.0%	37.5%	18.8%	18.8%	100%
기계	57.1%	28.6%	0	14.3%	100%
섬유	70.0%	20.0%	10.0%	0	100%
화학	47.4%	36.8%	0	15.8%	100%
철강	33.3%	46.7%	0	20%	100%
기타	28.4%	55.2%	4.5%	11.9%	100%
합계	43.6%	41.2%	4.4%	10.8%	100%

2) 산업별 환율영향은 통계적으로 P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75%와 섬유산업의 70%가 원화강세가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기계산업(57.1%)과 전기전자(51.2%)산업도 원화강세가 상당한 수의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보통신산업의 약40% 정도는 원화강세영향을 긍정적 (19%) 또는 무영향으로 (19%) 응답하여, 체감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나. 적정환율 및 마지노환율³⁾

- ▷ 對美, 對캐나다 진출기업의 적정환율이 1100원/달러로 가장 높아, 최근의 원화강세가 북미진출기업의 채산성악화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 산업별로는 섬유업계가 적정환율이 1200원/달러로 가장 높아, 원화강세로 인한 채산성악화와 가격경쟁력약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 마지노 환율은 지역별·산업별 모두 950원/달러를 가장 많이 응답, 환율이 950원/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해외영업 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됨

□ 지역별

<지역별 원/달러 마지노환율>

지역	최다응답 적정환율	적정환율 최저 - 최고	최다응답 마지노환율	마지노환율 최저 - 최고
아시아·대양주	1000	950 - 1100	950	800 - 1000
중국	1000	970 - 1250	950	800 - 1050
북미	1100	1000 - 1250	950	850 - 1010
중남미	1050	980 - 1200	950	900 - 1000
구주	1000	1000 - 1300	950	900 - 1100
CIS	1000	950 - 1200	950	800 - 1000
중동·아프리카	1050	950 - 1150	950	850 - 1000

3) 적정환율 : 적정마진 확보수준, 마지노 환율 : 수출포기 고려수준

- 적정환율과 마지노 환율은 對美, 對캐나다 진출기업이 아시아, 對中·아시아지역 진출기업보다 높게 전망, 최근 對美, 對캐나다 진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가격경쟁력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북미, 구주 : 적정환율 1000-1100원, 마지노환율은 950원이 대세
 - 중국, 아시아 : 적정환율 1000원, 마지노환율은 950원이 대세이나 800원까지 낮아짐
- 중국, 아시아지역 진출기업은 마지노환율이 800원에서 1250원까지 넓은 환율대에 분포하며, 이는 다수의 중국 및 아시아 진출기업이 제 3국으로 현지생산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전 지역에 걸쳐 마지노환율은 950원이 대세여서, 환율이 950원이하로 하락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영업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됨

□ 산업별

<산업별 원/달러 적정환율>

산업	최다응답	적정환율	최다응답	마지노환율
	적정환율	최저 - 최고	마지노환율	최저 - 최고
자동차 및 부품	1050	1000 - 1200	950	875 - 1000
전기전자	1050	950 - 1200	950	800 - 1000
정보통신	1000	950 - 1100	950	875 - 1000
기계	1050	970 - 1200	950	850 - 1000
섬유	1200	1000 - 1300	950	900 - 1100
화학	1050	1000 - 1250	950	900 - 1000
철강	1050	990 - 1250	950	900 - 1020
기타	1100	1000 - 1200	950	800 - 1050

- 섬유산업의 경우 원화강세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외진출 업체들이 인식하며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원화강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다응답 적정환율이 제일 높은 섬유산업 경우 해외진출기업들은 1200원 중심으로 1000-1300 원대까지를 적정환율로 인식하여, 원화강세로 인한 섬유산업 해외진출기업의 체감피해가 가장 큼
- 최다응답 적정환율이 제일 낮은 정보통신산업은 1000원을 중심으로 950-1100원을 적정환율로 인식하여, 가장 작은 체감피해를 입었으나 최근의 원화강세가 채산성악화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남
- 수출포기를 고려할 수 있는 마지노 환율의 경우, 전산업분야에서 950원/달러가 대세이므로, 환율이 950원/달러이하로 하락할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수출을 포함 해외사업포기 속출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
-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회귀분석 통계법에 의한 결과에 의하면, 950원/달러를 전산업 평균 마지노 환율로 보았을 때, 평균마지노환율보다 약 35원 정도 높은 985원/달러로 나타나, 원화강세 추이 지속 시 수출포기가 타산업보다 빨리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⁴⁾

다. 추가 환율하락 추이예상

▷ 환율전망은 환율변화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산업군일수록 향후 환율이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며, 추가하락이 없기를 기대함

- 향후 환율전망은 약 60%의 응답기업이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32%의 응답기업이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철강산업분야의 해외진출기업 응답기업의 60%이상이 추가 원화환율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계와 섬유산업분야 해외진출기업 응답기업의 50%이상이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4) 회귀분석 통계법에 의한 결과에 의하면 섬유산업의 마지노환율은 신뢰도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라. 환율대응전략 및 기타 애로점

▷ 원화강세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응답기업의 절반가량만이 자체 환율대응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진출기업은 3/4이 무대책

- 전반적 원화강세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기업의 약 56%는 원화 환율하락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약 44%는 기업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없는 것으로 응답
- 중국을 제외한 타 지역의 해외진출기업의 과반수가 환율대응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진출기업들의 경우는 응답기업의 72%가 기업차원 환율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 향후 원화강세대책에 대한 교육필요⁵⁾
- 환율대응전략으로는 환헛징, 결제통화다변화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62%의 응답기업들이 설문조사일(2006년 1월 10일~17일) 현재까지는 바이어들의 동향이 관망세라고 응답함
- 환율하락이외에 중국과의 경쟁(응답기업의 45%)과 유가등 원자재가 상승(응답기업의 48%)이 해외 비즈니스에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음⁶⁾

5) 지역별 환율대응전략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6)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항목은 복수선택 항목임

III. 환율변동에 대한 주요 시장별 영향과 경쟁국동향

1. 미국시장

- ▷ 미국진출 한국기업 다수가 원화강세가 ‘매우’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환헷징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 ▷ 유로화 결제율이 높은 유럽, 화폐가치가 저평가된 중국, 엔화가 여전히 약세인 일본기업에 비해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 경쟁에서 불리

가.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북미	62.5%	37.5%	0	0	100%

- 설문조사에 참가한 미국진출 한국기업들 중 62.5%가 환율하락이 수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등 모든 응답기업들이 환율하락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별히 자동차 및 부품산업과 기계산업 해외진출기업들이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
- 설문조사참가 미국진출기업들 중 87.5%가 회사차원의 환율변동에 대비한 전담부서 운영, 환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내 환율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음
- 설문조사참가 미국진출기업들의 54.2%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아직은 관망자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7.5%는 가격인하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함
- 미국수입기업들은 환율변화와 무관하게 소비자가를 동일하게 유지하려하며 환율변동 3%이내는 대부분 공급업체가 가격을 흡수하는 것이 관례임
- 현지에서 접촉한 많은 미국 수입업체들의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격을 재협상하며 가격 재협상에 실패할 경우 벤더 자체를 교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환율 변동폭이 커질 경우, 바이어들과의 협상을 통해 제품 가격 재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의 직접적인 재조정보다는 기타 거래조건 변경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경우가 더 많음

나. 미국 소재 주요 경쟁국 기업동향

□ 일본 기업 동향

- 일본 기업들은 환율과 에너지 가격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엔화 강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환 리스크 회피 정책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임
- 이번 엔화강세가 지속된다면 바이어에게 가격인상 요인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격인상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가정용 잡화제품, 선물용품, 문방구용품 등과 같이 저렴한 제품의 경우에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본 수출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많음
- 시카고에 소재한 기계제품을 다루는 M사의 경우에는 현지화 노력으로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한국 업체로부터 납품 받고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을 해올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엔/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하고는 있으나 납품제품의 상당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부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해 일정량 보전을 해주고는 있으나, 과도한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임.

□ 중국 기업 동향

<섬유업체>

- 본지사간 거래 시에는 달러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본사에서 외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 없음
- 또한 달러화 약세 시에도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이 거의 없어 실제로는 기업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임
- 위안화의 환율변동이 커질 경우 본지사간 거래 시 환율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비정상적 조치(언더밸류를 통한 관세절감, 기타 지사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가격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의 경우 바스켓 제도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중국환율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변동폭도 한국 등 경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로서는 바이어에 대한 가격인상 요구 등 특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중국 제품은 그동안 전반적인 가격 인상 추세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어 왔으며, 타 통화 대비 가격 변동폭이 낮아 이번 위안화 강세로 인한 가격인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섬유 경우 쿼터비용(quota charge)이 매우 높게 배정되고 있어 환율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중국은 위안화 절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바이어에 대한 가격 인상 보다는 수출물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반도체 업체>

- 주거래 은행인 상하이 소재 씨티뱅크에서 위안화로 즉시 환전함으로써 달러화의 보유기간을 최대한 축소, 달러화 약세에 대처
-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가격 경쟁력 보다는 연구개발에의 집중 투자를 위해 기술경쟁력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유럽 방위산업체 동향 (비행기, 헬리콥터)

- 대미 전체 매출의 2/3 가량이 달러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50% 가량을 헷징하고 있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노출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국내 거래 은행수를 60개 이상으로 유지
- 달러화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기존 고객과의 결제 수단을 유로화로 전환 시도 예정

2. 중국시장

▷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타지역 진출 기업과 비교,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덜 민감하며, 다수의 기업이 환율하락에 대한 대응전략 없음

가.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중국	35.2%	45.1%	4.2%	15.5%	100%

- 설문조사에 참가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 중 80.3%가 환율하락이 수출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19.7%는 유리하거나 영향이 없다고 응답

- 설문조사참가 중국진출기업들 중 71.8%가 회사차원의 환율변동에 대비한 사내 환율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
- 설문조사참가 중국진출기업들의 68.6%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아직은 관망자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2.9%는 가격인하압력과 기타 거래조건 변경 요구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함

나. 중국 소재 경쟁 일본기업 동향

- 중국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경우는 엔화강세가 자기기업의 해외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신 위안화 대달러의 추가절상에 관심을 보이며 절상폭이 크지 않을 때는 자기기업의 피해예상
- 이토추물산, 미츠이물산 등의 일본종합상사들은 달러화약세가 1달러당 70-80엔 이하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일본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일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자국과의 원자재 구입과 수출시 결제통화를 엔화로 하고 있어 달러화 영향이 적다고 함
- 마쓰시다전자, 메이코전자 등의 일본기업들은 달러화대비 엔화나 원화약세보다는 자사의 중국내 투자기업들의 경영에 관계가 있는 위안화 절상폭에 이해관계가 크며, 위안화절상시 투자처변경을 고려하고 있음

3. 유럽시장

- ▷ 유럽 진출기업은 유로화 결제가 많아 미국진출기업 대비 원화강세 체감 피해가 낮으나, 여타 시장보다는 높은 편임

가.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구주	44.4%	33.3%	11.1%	11.1%	100%

- 설문조사에 참가한 유럽지역 진출 한국기업 중 44.4%정도가 환율하락이 수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였음
- 설문조사참가 유럽지역 진출 한국기업들 중 61.1%가 회사차원의 환율변동에 대비한 전담부서 운영, 환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내 환율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설문조사참가 유럽지역 진출 한국기업들의 38.9%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아직은 관망자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50%는 가격인하압력과 수출가격인상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함

나. 유럽 소재 경쟁국 기업 동향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자동차의 경우 메이저 기업의 대부분이 유로화 결제를 하고 있어 달러약세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유로화 지역으로의 수출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임
- 독일 주재 도요타의 경우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겪고 있지 않으나, 향후 환율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음

- 닛산 폴란드는 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현지화(PLN)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환율 변동의 영향 미미

○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도 거래선 대부분이 유로화 결제를 하고 있어 달러 약세로 인한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로화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공작기계

○ 유럽의 거래선 대부분이 유로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달러화 약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달러화 결제업체들을 유로화 결제로 유도하고, 소폭의 가격인상과 원가절감으로 변화에 대응 계획

☐ 가전제품

○ 대부분의 결제통화가 유로화로서 직접적으로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에 따라 기업의 유럽 내수시장 공략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

☐ 식물 및 섬유제품

○ 최근 생산 공장을 동구 및 중국지역으로 대거 이전함으로써 달러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가격 인상요인을 반영 계획

☐ 타이어

○ '05년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나 통상 연간 고정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어서 특별한 영향이 없는 상황

4. 아시아시장

- ▷ 아시아진출 한국기업은 여타지역 진출기업에 비해 원화강세 체감피해가 낮으나, 저평가된 엔화·위안화를 바탕으로 한 경쟁국기업의 공세에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됨

가.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아시아·대양주	32%	40%	8%	20%	100%

- 조사에 참가한 아시아 진출 한국기업들 중 단지 32%만이 환율하락이 수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였음
- 조사 참가 아시아 진출 한국기업들 중 60%가 회사차원의 환율변동에 대비한 전담부서 운영, 환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내 환율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아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60%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아직은 관망자세라고 응답하였으나 24%는 가격인하압력과 수출가격인상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함
- 현지진출 한국중소기업의 경우 환율변화 예측가능 사내조직이 부재하여 가격인상요구 시 요구조건을 빈번히 바꾸게 되어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가 생김
- 베트남시장의 경우 베트남기업의 국내생산이 늘어 수입대체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저가품들이 들어와 핸드폰 등의 극히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환율하락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나. 아시아 소재 경쟁국 기업 동향

- 다임러 크라이슬러, 볼보 등의 자동차회사들은 달러화 거래 상품비중이 높지 않아 달러화약세에 대한 대응책을 구하지 않음
- 중국기업들은 위안화의 타 통화대비 느린 절상속도로 기인한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향상하는 품질과 디자인으로 섬유, 자동차 부품등의 품목등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 일본기업들은 12월 한달간 약 6%전후의 엔/달러환율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5년 엔화약세기조는 종전과 비교, 큰 변화가 없으며, 이에 일본기업의 가격 공세가 인도등지의 석유화학, 철강제품, 기계류 등의 시장에서 지난 하반기이후부터 지속되고 있음

5. 중남미시장

▷ 중남미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현지생산율이 높아 현지화 강세(달러화 약세)로 부품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보고 있어 우리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

가.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중남미	40%	45%	0	15%	100%

- 조사에 참가한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들 40%가 “매우”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응답
-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들 중 60%가 회사차원의 환율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들의 57.9%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아직은 관망자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36.9%는 가격인하압력, 거래선 변경압력과 수출가격인상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함

나. 중남미 소재 경쟁국 기업 동향

- 역내 진출 유럽, 중국 및 일본계 기업의 경우, 현재 본국으로부터 공급하는 원자재, 부품 및 완제품 공급단가 인상 조치는 없는 상황임
- 글로벌 부품조달이 이뤄지는 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국 현지화가 강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본국으로부터의 공급단가 인하가 예상되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부품조달 이뤄지는 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거래통화 다변화와 환차손 보전 보험 가입을 통해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국에 있어 진출국내 생산 및 판매 비중이 높은 경쟁국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국 현지화가 강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 달러화 약세가 내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음

6. 중동·아프리카시장

▷ 조사 대상기업의 전체가 원/달러 환율하락이 자사 비즈니스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함

가.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중동·아프리카	64%	36%	0	0	100%

- 설문조사에 참가한 중동·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들 전체가 환율하락이 수출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중 64%가 매우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응답
- 중동·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들 중 84%가 회사차원의 환율변동에 대비한 전담부서 운영, 환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내 환율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중동·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들의 57.1%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아직은 관망자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42.9%는 가격인하압력, 거래선 변경압력과 수출가격인상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함

나. 경쟁국 기업동향

- 두바이 진출 일본기업 (자동차), 유럽기업(건설) 공통
 - 회사내 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변동에 대응하고 있으며, 환헷징, 수출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함.
- 남아공 진출 일본기업 일반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였으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환헷징, 결제통화 다변화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
 - 달러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가격인상을 해야 하는데 가격 인상폭이 경쟁 기업에 비해 높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
- 남아공 진출 유럽기업 일반
 -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유럽기업의 경우 대부분 유로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달러화 약세에 별다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7. CIS시장

- ▷ 한국기업들이 CIS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2005년 상반기 원화강세기에 자체적인 대응력을 상당히 길렀으나, 일본기업들과 시장선점 경쟁과정에서 아직도 저평가된 엔화로 인해 고전예상

가.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동향

지역	매우불리	약간불리	유리	영향없음	합계
CIS	42.9%	42.9%	9.5%	4.8%	100%

- 조사에 참가한 CIS 진출 한국기업들 중 42.9%가 “매우”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응답, 전지역 평균 43.6%보다는 낮았음
- CIS 진출 한국기업들 중 70%가 회사차원의 환율변동에 대비한 전담부서 운영, 환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내 환율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CIS 진출 한국기업들의 66.7%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아직은 관망자세라고 응답하였으나 28%는 가격인하압력, 수출가격인상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함
- 2005년 원화강세를 경험하며, 앞서 전반적으로 대응책은 마련한 상황으로 환율에 대한 압박은 느끼고 있으나, 현지인원 감축, 활동비 감액 등 조치는 특별히 없는 상황임.
- 전반적으로 CIS 경기호황 등 주요시장으로 부상하는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이던 2004년 및 2005년 상반기에는 결제통화를 유로화로 변경하는 등 결제통화 변경에 비중을 둔 기업이 상당수나, 현재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2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하향된 상태로
결제화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보고는 있지 못한 상황임

- 전적으로 완성품 형태의 본사 생산분에 의지하는 제품의 경우 1,000원대
가 무너지면 마진 축소 및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950원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자동차, 가전 등 일본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군의 경우 원화강
세, 엔화약세가 이어질 경우 결국 일본기업과의 힘겨운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나. 경쟁국 기업동향

-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엔화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최근 현
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및 가전업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산 제품의 엔화약세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인하 조치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일본기업의 수익률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전망되고 있음
- 한편 휴대폰 등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엔화약세에 따른 이
익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도요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캄리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기반
확충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단순 환율 이외에 철강 등의 경우 중국기업이 저가로 러시아 시장
에 침투하고 있어 원화강세에 가격인하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원/달러 환율 하락의 한국수출에의 영향

- ▷ 바이어들은 현재 관망자세이나, 위안화 환율안정세와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 등 제3국으로 거래선을 바꿀 우려 있음
- ▷ 전통적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등에서는 여전히 원화강세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환율변동에 내성을 강화하는 조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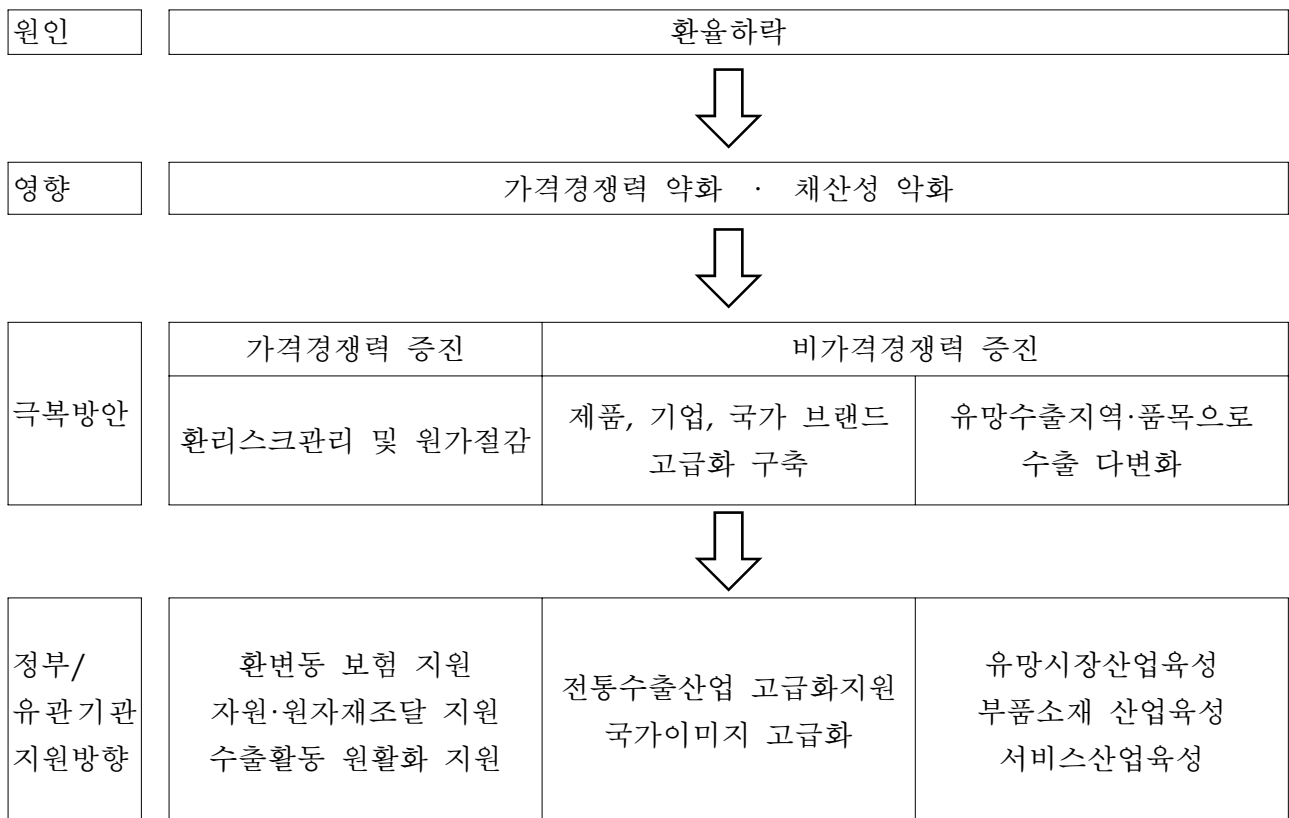
- 최근 언론과 타 연구기관들의 연구에 의하면 환율이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작아진 것으로 조사되나 이는 한정된 산업에 해당함
 - 원화강세는 수입유가, 수입자본재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최근 환율과 수출실적의 상관관계가 적어진 이유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보통신관련 품목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데 기인한 점이 많음
 - 또한, 정보통신관련 품목수출증가이외에 중국 등 아시아 생산기지의 제3국 수출증가로 인한 중국·아시아 생산기지로의 원부자재 수출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원화강세 관련, 바이어들의 62%가 최근 환율변동의 불안전성을 감안 향후 추이 관망중이나, 일본·중국의 경쟁기업들은 자국통화약세 기조가 유지돼 달러화약세에 영향 없이 기술경쟁력증가에 집중하고 있어, 원화강세 지속 시 바이어들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거래선 변경 우려 있음

- 위와 같은 원인들로 첨단기술제품을 제외한 전통 전기·전자, 기계, 섬유 등의 수출은 아직 원화강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미국 등 중국·아시아 기업들과의 경쟁지역은 환율영향이 아직도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전통수출상품 기업들의 경우 원화강세에 대한 대비필요

2. 정부 및 기업 대응방안

가. 대응방향

- 단기적으로는 환헷징, 결제통화변경 등의 직접적 환율하락피해 최소화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등 수출관련기관 등이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의 분야에서 수출기업들의 역량증가 지원 필요
- 전통수출상품의 경우 상품 또는 국가 브랜드 고급화와 수출지역 다변화 지원 등 환율변동에 내성을 강화하는 비가격경쟁력 지원사업이 필요



나. 단기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제고 지원

☐ 환변동 보험 지원

- 중국진출기업의 경우 72%가 대응전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환리스크 관리시스템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
- 중소기업들의 경우 환변동 보험등의 환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역량배가 지원정책필요
 - 예 : 정부 및 유관기관의 환리스크 관리교육, 환보험 가입지원

☐ 전통수출산업 고급화지원

-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산업등은 원화강세에 수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통수출산업의 수출품목의 고급화가 매우 시급함
- 전통수출산업의 경우 ISO 9001, ISO 14000 등 국제품질 및 환경표준등의 국제규격을 국내기업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품 브랜드 가치의 고급화를 확보
- 섬유, 기계등의 품목은 정부차원의 전략적 R&D투자 및 민간투자유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유도

다. 장기 비가격경쟁력 증진

☐ 가격경쟁력·채산성 제고 지원

- 글로벌 물류거점 구축 사업
 - 섬유, 자동차부품등의 전통수출품목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감소를 위한 지자체 및 산자부등의 유관기관들이 제휴하여,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주력 수출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 공동물류센터 구축지원 필요

○ 자원·원자재조달지원

- 자원조달시장의 가격변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업의 안정적 자원·원자재조달 지원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산업 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공동 구매 지원으로 원가절감 유도

○ 수출활동 원활화 지원

- 해외시장의 수출기회정보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비용 절감효과를 위한 지원
- 환경규제 등의 수입규제정보의 신속한 파악등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국내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지원

□ 유망 수출지역·품목으로 수출 다변화

○ 정부조달시장 등 향후 유망시장 진출지원

- 세계각국정부기관의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시장은 시장진입이 어려운 반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 각국의 조달시장에 진입을 하면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 없이 안정적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지원필요

○ 부품소재 산업 육성

- 고부가 첨단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핵심부품 수출 확대로 비가격 경쟁력 확보
- 핵심부품소재개발을 위한 기업과 관련기술연구소의 클러스터화의 전략적 지원